

우리나라 전통지식, 세계적 보호의 길 열려

한국 전통지식 저널, 국제특허출원 심사시 필수 검색문헌으로 선정

트허청은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개최한 제15차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기관회의(PCT/MIA)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지식 관련 학술지들이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는 국제특허출원을 심사할 때, 반드시 검색하여야 하는 선행기술문헌(PCT Minimum Documentation)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 * PCT/MIA(Patent Cooperation Treaty / Meeting of International Authorities) : 국제특허출원 관련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협의체로서, 한국·미국·유럽·일본 특허청 등 15개 주요 선진국 특허청으로 이루어져 있음
- * PCT Minimum Documentation :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해 지정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특허출원을 심사할 때 필수적으로 비치하여 검색해야 하는 선행기술문헌

이번에 국제특허조약에 의한 필수 검색문헌으로 선정된 『한국 전통지식 저널(Korean Journal of Traditional Knowledge, KJTK)』은 특허청이 2005년부터 구축하였던 전통지식 분야 학술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한의학

회지·한국생약학회지·한국식품과학회지·한국응용생명과학회지 등 한의학·약학·식품·생물 분야에 대한 47개의 우리나라 주요 학술지를 망라하고 있다.



(참고 : 『한국 전통지식 포탈』 메인페이지)

내가 창작한 디자인도 출원 전에는 공개 주의!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어

트허청 관계자는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이라도 출원 전에 잡지, 카탈로그 등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람회 출품 등으로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도 알려지지 아니한 디자인, 즉 디자인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반포된 간행물 및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에 게재된 디자인과 이에 유사한 디자인이 아닌 객관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출원인 자신의 디자

인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원인 자신의 디자인이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등으로 공개되어,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출원건수가 2005년 46건, 2006년 52건, 2007년 134건에 이른다.

지자체 축제 브랜드화 활발

지방자치단체 5곳 중 1곳 축제관련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제를 '지역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면서 상표 등록 등을 통한 브랜드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익산시는 매년 가을에 여는 꽃 축제인 '천만 송이 국화 축제'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상표로 등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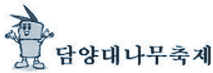
경기도 양평군도 매년 10월 초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드는 용문산 광장에서 여는 '양평은행나무 축제'의 업무표장을 등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축제와 관련하여 지자체

가 등록한 상표/서비스표 및 업무표장은 49건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축제의 브랜드화에 적극적인 것은 '축제'라는 브랜드 파워를 통해 지역 이미지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등록된 대표적인 지자체 축제 상표〉



전남 담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양군



광주시 동구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서천군



경북 청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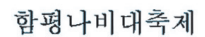
경기도 파주시



충남 보령시



전북 무주군



전남 함평군

특허수수료, 신용카드로 24시간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

중앙행정기관 최초, 신용카드로 수수료 납부 !!

특허청은 국민을 섬기는 특허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인고객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특허수수료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신용카드 등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1일부터 현금을 찾아 은행

행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수수료납부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납부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민원인은 신용카드·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휴대폰·ARS 등 5종의 편리한 전자납부서비스를 통해 서

류 제출부터 특허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로) 상에서 온라인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추가 이용수수료의 부담은 전혀 없으며, 수수료 납부결과 확인서류 또한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강! U-헬스케어로 지킨다

U-헬스케어 관련 BM특허 출원 증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사용하여 치료 차원이 아닌 예방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헬스케어(U-헬스) 비즈니스 방법(BM, Business Method)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U-헬스는 환자나 일반인이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의료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단순한 원격진료 단계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건강정보를 측정하여 전송하는 E-헬스 단계로, 최종적으로는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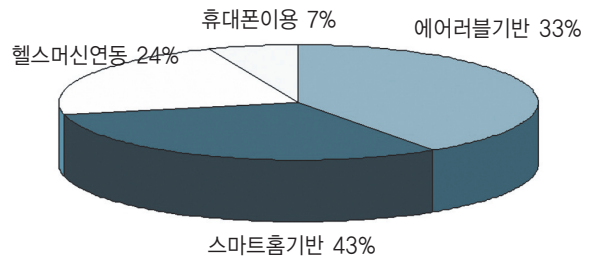
인의 건강이 언제나 모니터링되는 U-헬스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U-헬스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노령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증가되어 평소 생활하는 가운데 건강과 질병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특허청은 U-헬스 BM특허의 출원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건이었으나, 2006년에 15건

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21건으로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반면, 원격진료 관련 BM특허의 출원은 2002년 25건에서 2007년 5건으로, E-헬스 관련 BM특허의 출원은 2004년 26건에서 2007년 1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U-헬스케어 기술분야별 출원 분포



제공 특허청

中山信弘 교수 초청강연 및 출판기념회 개최

특허단신

국내최초로 일본의 저작권법 책 완전 번역, 국내에 소개



지난 4월 5일 오후 3시, COEX 컨퍼런스센터 310호에서 나카야

마 교수의 「저작권법」 한국어판 출판기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일본에서 지식재산권법의 최고 권위자로 추앙받는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의 나카야마 노부히로(中山信弘) 교수가 10년간의 구상 끝에 탈고한 저서 「저작권법」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윤선

희 교수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판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번역을 하여 한국어판으로 출간하게 된 것이다.

날로 저작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에서 선풍적인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나카야마 교수의 저서가 우리나라에 번역·소개됨에 따라 학계·업계·관련 기관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